



일주문

대륜스님 탄신 119돌 법회
해초 태고종 총무원장은 5일 오전 10시 사간동 법문사에서 태고종 창종주 대륜스님의 탄신 119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워크숍
법정 맑고향기롭게 회주는 6월 23-24일 길상사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2001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방 위령재서 법문
현성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장은 6월 24일 중부전선 호국금강사에서 6·25 51주년 위령재 천도법회에서 법문했다.

봉선사 신도회 간부 교육
일명 봉선사 주지는 6월 23일 봉선사 산하 팔사 신도회 간부 50명을 대상으로 사찰신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 현충원서 영산대법회
현장 통도사 대전포교원 불광사 주지는 6월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호국영령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

문화부 장관 표창 받아
효성 울산 아육심인당 주교는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6월 16일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의 표창장을 받았다.

제16회 불이상 수상자

연구 안양규 · 실천 박광서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제16회 불이상 수상자로 안양규(사진 위) 씨와 박광서(사진 아래) 교수를 선정했다.

연구분야 수상자인 안양규 씨(동국대 강사)는 초기 불교학의 연구에 매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실천분야 수상자인 박광서교수(서강대 물리학과)는 재가신행단체인 우리는 선우 이사장직 등을 수행해오며 재가신행의 모범과 나아가 바를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5과목 강의), 야간수업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익(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무형문화재 범패전수자)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교육과목: 불교학 개론, 인도불교사, 불교경전개설, 불교문화특강, 원시불교, 아비달마(구사론), 반야사상, 불교의식 실습, 유식사상,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우리말불교의식, 법화사상, 화엄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Table with 4 columns: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Lists subjects like Buddhism and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and exam methods.

Table with 4 columns: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Lists subjects like Buddhism and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and exam methods.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우과
특전사항: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학장 해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 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 756-7258

"미국 가서도 한국불교 포교"

13년만에 한국 떠나는 테데스코 교수

"미국에서도 한국불교를 선양할 수 있는 일에 열의를 다할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한국에서 불교학 교류, 종교간 대화, 환경, 여성,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프랭크 테데스코(JTS 상임이사) 박사. 그는 6월 28일 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불교에 대한 애정을 재차 확인했다.

테데스코 박사는 "미국 플로리다에 계시는 노모의 병환이 악화돼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었고, 마침 로린스 대학에서 동양철

학 강좌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미국행을 결심했다"며 "미국에 직을 두었지만 한국을 자주 왕래하며 한국불교의 해외 창구로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데스코 박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콜롬비아출판사로부터 '한국불교 현장사'라는 논문을 의뢰받은 까닭에 한국을 자주 왕래하며 자료 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그는 "JTS 상임이사로 있으며 진행해 온 국제 교류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아, 장시간 바깥을 쫓아다니는 한국 불교계의 일원으로 활동해야 한



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IARF(세계종교자유연맹) 플로리다 지회장으로 추천돼, 종교자유와 화해를 위한 국제 규모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

어서 다종교 국가인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 테데스코 박사는 "한국불교는 국제 교류에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한다"며 "외국인 불자를 손님이 아닌, 세계 속에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도반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a.com

"초발심 자세로 대민봉사"

전남지방경찰청 경범죄처분팀장 천승범 초대회장

"초발심의 자세로 다른 회원들과 함께 경범죄회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6월 16일 창립된 전남지방경찰청 경범죄처분팀장 천승범 회장을 소개하는 글.

"불교에 깊은 지식이 없다"는 천 회장은 "나보다 불교를 더 잘 알고 있는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경범죄회를 발빠른 실행단체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천 회장은 12개 관할 경찰서 경범죄 임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꾸릴 계획이다. 또한 천 회장은 경범죄회의 재적 사찰을 정하고 지도법사를 영입하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천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대민봉사할 수 있는 불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소식지 퍼내 불심 증장"

부산 울산 경남 언론인회 강호일 2대회장



6월 23일 열린 총회에서 부산·울산·경남

"불교 언론인의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소식지 발간과 각 회원사 간의 유대강화 및 활성화를 이루어 명불상부한 불교언론인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불교언론인회의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강호일 57 부산일보 수석 논설위원 회장.

"너무 부족한 사람에게 회장직을 맡겨 부담이 크다"는 강 회장은 "회원의 소식과 불교언론인회의 활동사항 등을 담은 소식지로 언론인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임원 확충 및 조직 정비, 연합 법회 등도 구상하고 있다.

"회원들이 신심을 다져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내 일의 전부"라는 강 회장은 "회원사와의 활발한 교류와 법회, 성지순례 등 실질적인 활동으로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정호은)는 6월 23-24일 삼성동 봉은사에서 제 2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했다.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 스님을 비롯해 전국 어린이법회 교사 3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상어롱 특강, 여름나라 게임 특강, 신바람 레크레이션, 분입토의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태고종 전북총무원 청사 준공법회

태고종 전북총무원(회장 남파은)은 6월 26일 전주 완산구 종노송동 전북총무원 신축청사에서 준공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승정 법전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대은, 전북총회위원장 진관, 2종무국장 성오, 포교국장 송철, 향산보문사 주지 스님과 한광수 전북 불교대 부학장 등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아도모레원 신라초전기념관 상량

구미 선산 아도모레원(조실 겸 원장) 도문은 신라초전기념관 상량식 법회를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0일 봉행했다. 이날 김진영 장수문화원장의 축사와 도문 스님의 법문에 이어 한두레마당 예술단 박정철 단장이 대법고인간문화재 김종문 장인 제작을 신라불교초전기념관에 기증했다.



대한전통불교연구회 법인추진 지원법회

대한전통불교연구회 법인회 추진 기념법회가 6월 24일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제 2대 이사장에 해거스님이 추대됐다. 법회에는 봉선사 회주 월운스님, 태연일본보현사 회주스님, 서문각 진흥원 이사장, 김영태 동국대 교수, 최병현 서울대 교수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했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법일 스님 초대전

통도사부산포교원(주지 심삼은)은 20-24일 국제신문 4층 전시실에서 개인 8주년 기념 사진 초대전을 열었다. 심삼스님을 비롯해 최익두 부산시청공무원불자회 회장 김창선, 대광대학교 회장 등이 참석한 기념행사로 시작된 초대전에는 석불을 주제로 한 법일스님의 작품 38점이 전시됐다.



부루나 양로원 개원법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인천지회(회장 선일)는 24일 오후 1시 부루나 양로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노인의 수행과 임종을 돕고 무연고 노인을 보호할 부루나 양로원 개원식에는 인천조계종사무원연합회장 현성스님, 조한천 새천년민주당 의원 박천양 인천 서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부루나 양로원은 인천 가좌동에 소재해 있으며 3백여 평 규모의 3층 건물, 032577-5108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승복·법복·누비·바람 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의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꽃, 음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 등록하고 무늬없는 승복도 동시에 생산합니다.
춘추복: 촉감이 매우 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안합니다.
하복: 모시처럼 시원하며 구김이 없고 다림질이 필요치 않습니다.
장삼: 가벼워서 입기가 아주 편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가방: 완전 방수처리되며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품목, 구분, 판매가. Lists items like 승복, 하복, 장삼, 손가방, 바람 and their prices.

스님께 기사봉사 보시하면+물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법란을 소멸함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사: 대구 동구 신천3동 139-1 봉용B/D 3F 302호
전화: 053)764-4114 011-9850-4400